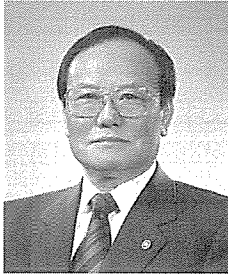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金 始 中

(사단법인 과학기술포럼 이사장)

최근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우주탐사선 ‘패스파인더’ 호의 화성착륙과 ‘소저너’ 로봇의 활동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유인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계획이며, 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 10여개

국이 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있고 있다. 또한 그 신문 지면의 한 구석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2단형 중형 과학로켓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발사 20초만에 통신두절로 모든 관측에 실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과학자의 한사람으로서 화성착륙 성공에 대한 기쁨에 앞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크게 낙후되었다는 것을 재삼 인식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불감증 때문이었다.

과학기술 불감증 씻어야

우리 언론은 선진국의 과학기술 진보에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이 기회에 우리 과학기술을 재조명해 보려는 시각은 없었다. 또 정치권이나 사회 각계의 과학기술에 대한 불감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도나 이제까지의 인색한 과학기술투자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 나라의 괄목할만한 과학기술의 성장은 그 나라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이제까지의 환경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다 큰 변

화와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국가발전의 대한 왕성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에는 우리나라를 복지선진국으로 도약시켜서 영광스런 선진조국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 오늘,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의미의 큰 뜻을 모아 실천하자는 의지를 굳게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투철한 사명감 앞세워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과학기술인재를 키우고 연구개발을 선도하면서 국가발전의 밑거름, 나아가서 국가발전의 선봉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경향 각지에서 묵묵히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는 오늘의 경제발전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전통양식인 종속적 사회문화와 의식 속에서 군사문화에서 파급된 목표달성을 위한 저돌적 추진력, 그리고 관준민비의 관주도적 Top-down식의 관행을 참고 견디면서 오늘날 세계가 부럽게 여기는 이른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왔다. 이것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다.

한편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거시경제지향적인 정부정책과 알파한 상흔의 미온적인 이해 때문에 때로는 고민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각계에 대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소리높여 외치기도 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도록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한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환경은 어떠한가? 미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양상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가속화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초석이 된 정보와 지식의 확보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중심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뿐만 아니라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술 우위권 확보를 위한 국제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기술 선진국과 낙후국가간의 이해대립은 갈수록 첨예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냉엄한 국제적 기술패권주의 환경을 극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앞두고 선진 각국은 과학기술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켜서, 종래 경제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수립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을 경제 및 산업정책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 '95년 9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안보 과학기술전략' 보고서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같은 주변환경과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3고·3기현상, 사회인프라의 부족에 있다는 등 거시경제적 시각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오늘 우리 경제의 침체원인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발전의 침체성에도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겠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라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기여비중이 50~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총 연구개발투자, 총 연구인력 등은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그것의 질적 평가기준이 되는 기초연구의 충분도, 자질있는 엔지니어의 공급, 기업간 기술협력, 산학협동연구, 해외특허건수 등은 25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96년도 IMD분석내용인데 이를 참고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가가 분명해진다.

과학기술교육 너무 열악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온 국민 모두가 개혁해야 할 과제중 시급하고 중요한 10개의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과학적 사고와 행동의 결여, 둘째는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의 열악과 부실, 그리고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다. 셋째는 자격있는 유능한 엔지니어의 부족, 넷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다섯째는 과학기술을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일점주의 만을 강조하는 근시안적인 발상과 집착으로 야기되는 협력체제의 결여이다. 여섯째는 과학기술자의 자존심 선양과 안정성 확립의 미흡, 일곱째는 첨단기술개발의 지속성 결여와 고부가 가치성 기술개발의 등한시이다. 여덟째는 중소기업들의 묶인 공산품의 자본재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기술발전의 부진, 아홉째는 우리 경제 규모로 보아 벌써 탈피했어야 할 각종 간섭 및 규제 상존이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 개개인에게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자기발전과 국가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결여이다.

열린 마음으로 단합해야

국민 개인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고 있어야 할 우리는 때아닌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성취하고 과학문명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용을 갖추려면 미시경제적측면도 강조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관건임을 이제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과학기술계가 정치, 경제논리에 의존해온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경제와 국가문명이며 경제와 국가문명이 과학기술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모든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한편,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요소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과학기술인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줄 시기를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민 모두가 과거와 같은 사회문화 의식 및 과학기술풍토에서 탈피하는데 앞장서서 창의와 협동정신 그리고 자율성 발휘로 우리나라가 21세기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큰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하겠다.

오늘은 각 단체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인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로 단합하며, 국가발전에 대한 왕성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⑤7